

# 왜곡된 남성다움의 굴레를 벗는다

## 남성의 눈으로 남성사회의 억압구조 파헤친 남성학 관련서 늘어

출판계에서 거대한 남성지배체제의 철옹성에 균열을 가하는 망치소리가 드높다. 그 소리가 이제까지는 체제의 외곽에서 울렸던 '여성학'의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남성학'이라는 이름으로 체제의 수혜자라고 믿었던 남성들이 공격에 가담한 것이다. 이는 '남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정초를 지으려는 입문서적의 책부터 남성 기득권 상실의 실상과 허상을 파헤친 실증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들로 가시화되고 있다.

### '남성학'의 정초

일본의 남성학자 이토 키미오의 《남성학 입문》은 남성학을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저자는 여성학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여성의 눈으로 비판한 것'이라면, 남성학(Men's Studies)이란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사회를 비판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남성에게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남성학은 1970년대와 80년대 여성학의 발달에 대응한 개념이다. 이것은 남성들의 '남자다움'에 대한 속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남성들 역시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자답게'라는 억압 때문에 억눌려왔으며 그것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 저자는 남성들도 구태의연한 '남자다움'의 허세를 벗어버리고 '자기다움'을 추구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남성학 입문》이 일본의 사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학문의 열개를 짜려고 했다면, 《남성과 한국사회》와 《남자도 사람이다》는 여성학자와 남성학자들이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해부한 성과물이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에서 엮은 《남성과 한국사회》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요인을 여성학자들의 눈으로 살펴본다.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상징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을 가족, 조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효재는 <한국사회의 남성 이데올로기>에서 가장의 권위와 위신을 상실당한 남성들의 위기는 여성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남성과 가정에 예속시킨 가부장적 질서의 결과라고 본다. 27명의 아버지들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한 한경혜의 <아버지상의 변화>는 한국가족 내 남성/여성의 관계, 부부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하면서 남성만이 가족생계부양 책임자이고 가사, 자녀양육은 여자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군대문화와 남성>에서 조성숙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청년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강인한 군인으로 재사회화하기 위해 남성우월의식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과정을 살핀다. 광고 속의 남성문화를 분석한 김자혜는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남성상>에서 텔레비전 광고 속의 남성문화가 부계중심의 혈통주의, 남이중심적인 가치관 등으로 표출되고 또한 일등주의와 남성의 정력이 강조된다고 비판한다.

《남자도 사람이다》를 쓴 남성학자 정채기는 이토 키미오와 비슷한 논점을 취한다. 저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주장은 왜곡된 이데올로기라고 파악한다. 이제 남성들에

여성학의 문제제기와 도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남성학 책들은 남성에게 지워진 짐이 여성만큼이나 버겁다는 소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로맹 작 <청동시대>

대한 성적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모두 남성이나 여성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남자들이 우선 '남자다움'의 굴레를 벗어나 강함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것, 그리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남과 대화하는 법을 익힐 것 등을 새로운 남성상으로 내놓는다.

### 현대 미국남성들의 자화상

현대 미국남성들이 처한 현실을 통해 남성문제를 사회적·종교적으로 접근한 책들도 나와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엘리스 코크가 쓴 《남자의 위기》는 권위와 자존을 상실해가는 현대 미국남성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요구와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자신의 권리와 역할이 변화, 혹은 퇴보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저자는 특히 남성 지식인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여성들이 진정한 남녀평등관을 가져주도록 호소한다. 즉, 남성들의 불만은 여성들의 권리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의 과도함과 일관성의 결여, 잘못된 인식된 사회통념 등에 있다는 것이다. "남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오해와 혼란의 상태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해독제는 성적 편견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잭 볼스워의 《기रो에 선 남성》은 기독교적인 남성상을 탐색한다. 미국사회에서 남성들은 강인하고 거칠고 이지적이며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남성대본'의 폐기압력을 받고 있다. 8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남성운동은 '왕', '전사', '마술사', '연인'의 원형을 소유한 다차원의 사람을 온전한 남성상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온전한 남성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면서, 기독교적 남성상은 굳건함, 힘, 결단력, 합리성, 기타 전통적으로 남성성으로 규정해 놓은 여러 특징들과 함께 다정함, 모범성, 보살핌, 정적인 면, 기타 전통적으로 여성성으로 규정해 놓은 여러 특징들을 포함한다고 한다.

여성학의 문제제기와 도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남성학 책들은 남성에게 지워진 짐이 여성만큼이나 버겁다는 소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다움', '자기다움'을 향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할 때 인간해방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은 귀중한 성과물이다.

《페미니스트 저널 IF》의 박미라 편집장은 "남성학은 남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인식하고 남성들의 인간적인 내약함, 고충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성학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을 포기했을 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박전홍 기자

### 남성학 관련서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남성학 입문	이토 키미오 지음/정채기	교육과학사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클라이드 프랭클린 지음/정채기	삼신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남자도 사람이다	정채기 지음	집현전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대니얼 레빈슨 지음/김애순	이화여대출판부
남자의 위기	엘리스 코크 지음/안종철	한송
기रो에 선 남성	잭 볼스워 지음/송경석·권영석	IVP
남성다움의 위기	린 페인 지음/이중열	비울